

요약

- 금융포용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금융소외를 경감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유동성 제약과 관련된 금융소외가 두드러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은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했지만, 정보비대칭에 의한 정책 수혜자의 쓸림현상, 자원 확대의 제약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됨
- 최근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 사례들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줌
 - 핀테크 회사가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공제하는 사내대출은 높은 대출 승인율, 낮은 금리, 상환 용이성 등으로 근로자의 유동성 제약 문제를 개선함
 - 급여선지급은 근로자가 급여일 전 급여의 일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근로자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직비용 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장점이 있음
 - 선정산은 미지급된 청구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국내에서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을 미리 정산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현금흐름 확보를 돕고 있음
- 핀테크는 금융포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 및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 촉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통해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포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회사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특례나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 절차적 혁신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금융포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포용 투자 기준 마련, 민간의 금융포용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자산군에서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 등을 검토해야 함
 - 혁신적 기술을 통해 금융포용을 수행하는 핀테크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의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1. 논의 배경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을 뜻함¹⁾
 -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금융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비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금융포용은 금융소외와 반대되는 상태 또는 금융소외를 경감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주로 유동성 제약과 관련된 금융소외, 즉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대출을 받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금융소외지표(Findex)에 따르면, 세계 15세 이상 성인의 평균 금융계좌보유 비율은 76%이었던 반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성인의 금융계좌보유 비율은 99%였음(2021년 기준)
 - 저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은 가능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금융비용이나 수입발생과 비용발생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됨
 - 대부분의 경우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해야 하지만, 지불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이 없어 고금리 대부업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됨
 -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여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 대출도 불가능한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²⁾
-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추가 공급,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 확대,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추진함
 - 은행권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여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동 방안은 개인사업자에게 대한 이자환급과 이자환급 외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포함함³⁾
-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은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했지만, 정책자금 수혜자의 쏠림현상(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중복수혜 등), 자원 확대의 제약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됨
 - 정부정책의 신속성이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1) <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

2) 금융감독원·경찰청 보도자료(2024. 6. 12),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3) 은행연합회 보도자료(2023. 12. 21), “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본고는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 사례를 검토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함
 - 개발도상국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주로 금융계좌 접근성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면, 본고에서 살펴볼 핀테크 회사들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음
 - 급여에서 직접 상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급여 또는 매출액의 지급 시점과 현금 필요 시점 간 시차를 좁혀 근로자나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제공한 사례를 살펴봄

2.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 사례

가. 근로자대출

- 근로자대출(Employee Loan, Payroll Loan)은 핀테크 회사가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직접 공제함
 - Baker and Kumar(2018)는 근로자의 급여 공제를 통해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샬러리 링크(Salary Link)라고 정의함⁴⁾
 - 이들은 급여지급과 연동할 수 있는 능력, 거래비용 절감, 정보접근성 우위가 샬러리 링크의 강점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근로자대출과 급여선지급(Earned Wage Advances; EWA)을 들었음
 - 근로자 입장에서는 높은 대출 승인율, 전통적 대출기관에 비해 낮은 금리, 상환의 용이성, 긍정적인 대출상황 이력 축적을 통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샬러리 링크를 이용하는 근로자대출은 낮은 채무불이행과 높은 대출실적을 통해 전통적인 대출기관보다 더 많은 근로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음
 -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금융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서 근무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직률도 낮출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Salary Finance를 들었는데, 이들은 회사와 계약하여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저비용 할부대출을 제공함
- 영국 Salary Finance는⁵⁾ 샬러리 링크 방식으로 근로자대출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근로자대출 외에 급여 선정산, 정부지원 저축프로그램 및 저축 도구도 제공함
 - 근로자의 급여에서 대출이 직접 상환되므로, 일반 대출기관에 비해 대출 승인율이 높고, 기한에 맞추어 대출이 상환됨
 - 전통적인 대출기관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500파운드(약 87만 원)에서 25,000파운드(약 4,390만 원)까지 대출을

4) Baker and Kumar(2018), "The Power of the Salary Link: Assessing the Benefits of Employer-Sponsored FinTech Liquidity and Credit Solutions for Low-Wage Working Americans and Their Employers", *M-RCBG Associate Working Paper Series* No. 88, Harvard University.

5) <https://www.salaryfinance.com/uk/>

제공하고, 5,000파운드 미만 대출의 경우 다른 곳에서 더 낮은 이자율을 찾는다면 그 조건에 맞추어 대출해 줌

- 대출은 고정 이자율에 따르며,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이자율과 상환일정은 동일함
- 편리성에 따른 과도한 대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예산관리, 저축, 금융역량 강화 관련 도구들을 함께 제공함

○ ‘샐러리파이’는 사내대출 복지를 대행하는 국내 핀테크 회사로서 샐러리파이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학자금, 월세, 이자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⁶⁾

- 사내대출은 회사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회사자금을 직원에게 빌려주는 제도로, 신용점수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받거나 영향을 주지 않음
- 2024년 9월 기준으로 샐러리파이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30여 개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대기업 3개 사, 중견기업 11개 사, 중소기업 15개 사), 누적 대출 지급액은 130여억 원임
 -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복지 대출 이자지원은 중소 스타트업 대비 큰 이점으로 부각되어 중소 스타트업 인재 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샐러리파이는 중소 스타트업의 사내대출도 지원하고 있음⁷⁾
- 아울러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 은행자금을 통한 사내대출, 이자, 월세, 의료비 등 현금성 생활지원 복지 운영 등을 준비 중임

○ 샐러리파이는 중소기업도 사내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외부 대출 이자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편리하게 사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⁸⁾

- 사내대출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여 기존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만 활용이 되었으나, 샐러리파이의 핀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사내대출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음
- 샐러리파이가 제공하는 사내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사내대출 미상환리스크 해징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이 보증보험회사의 포괄협약 인수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의 사내대출에는 애로가 존재함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지만 샐러리파이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증을 이용하거나 신의로 사내대출을 진행하기도 함

6) <https://www.worked.im/>

7) 네이버는 근로자의 대출금액 이자의 1.5%를 10년간 지원(대출금액 최대 2억 원까지)하고, 카카오는 주거안정(주택구입, 임차료)과 생활안정(의료비, 학자금 등)을 위한 최대 3억 원까지 제휴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함; <https://recruit.navercorp.com/cnts/benefits?lang=ko>; <https://careers.kakaobrain.com/benefits/benefits>

8) 샐러리파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장의 사내대출은 대체로 0~20%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샐러리파이 계약 사업장의 약 30%는 근로자에게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나. 급여선지급

- 급여선지급(EWA)은 근로자들의 원하는 시점에 급여일 전 급여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이 쉽고, 중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임⁹⁾
 -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채권추심이 없다는 장점과 함께 예산관리, 저축 및 금융이해력 강화 도구 등 재무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아울러 급여선지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재무관리에 대한 제어력이 높아졌다고 느끼고, 재무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근속률 증가에 따른 이직비용 절감, 근로자의 재무건강 및 회복력 강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적인 근로자 유치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 다만, 사용빈도가 높아질 경우 근로자 부담 비용이 커질 위험과 소비자의 과소비 조장 가능성,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모형, 채권 압류나 기타 공제가 있을 경우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 등이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급여선지급 서비스는 예산관리, 저축 도구, 금융역량 강화 도구 등 금융건강(Financial Wellne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CFPB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B2B 급여선지급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2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 2021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것임¹⁰⁾
 - 평균 급여선지급 이용 금액은 35달러에서 200달러로 수준으로 적은 편(전체 평균 106달러)이었고,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3,000달러의 급여선지급을 이용하였음
 - 수수료를 부과하는 급여선지급 제공회사들은 건당 1.99달러에서 5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부담한 평균 수수료는 건당 3.18달러였음(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건당 2.60달러)
 - 소비자가 부담한 수수료의 대부분은 급행이체수수료(Expedited Transfer Fee)였음
- 국내에서 급여선지급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는 ‘페이워치’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 사업 중임¹¹⁾
 -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하면 근로자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급여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지급함
 - 국내에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매드포갈릭, KFC, CU, CGV 등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9) 급여선지급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Lux and Chung(2023)을 참조하길 바람; Lux and Chung(2023), “Earned Wage Access: An Innovation in Financial Inclusion?”, *M-RCBG Associate Working Paper Series*, No. 214, Harvard University

10) 2023년 CFPB가 AnyDay, Branch, DailyPay, Immediate, OrbisPay, Rain, Brigit, Dave 등 고용주와 계약을 통해 급여선지급을 제공하는 8개 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임; CFPB(2024. 7. 18), “Data Spotlight: Developments in the Paycheck Advance Market”

11) <https://www.paywatch.co.kr/>

- 페이워치는 주로 기간제 근로자를 둔 고용주에게 급여선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출퇴근 데이터와 급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근로자가 긴요한 시점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페이워치의 급여선지급은 일반적으로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하며, 인출 건당 이용 수수료 900원, 이자는 없음

다. 선정산

- 일반적으로 선정산(Invoice Factoring)은 미지급된 청구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현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함
 - 현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현금흐름 개선을 통해 사업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판매자 신용도보다는 청구서의 가치나 고객의 신용도를 우선시하여 신용도가 낮은 판매자에게 유리하며,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짐¹²⁾
 - 미국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로는 FundThrough, C2FO 등이 있음¹³⁾
 - 이 밖에도 미국시장 내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대상 유동성 확보 서비스로는 미수금 금융, 다이내믹 할인, 공급망 금융, 매출 기반 선지급 등이 있음¹⁴⁾
- 국내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을 미리 정산해 주는 선정산 서비스들이 존재함
 -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대출이 있거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유동성 확보는 더욱 어려움
 - 따라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불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이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됨
 -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스, 데일리페이, 올라, 얼리페이 등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¹⁵⁾
 - 네이버파이낸스, 올라, 데일리페이가 온라인 쇼핑몰에 특화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얼리페이는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함

12) <https://www.nerdwallet.com/article/small-business/invoice-factoring>

13) FundThrough(<https://www.fundthrough.com/how-funding-works/>); C2FO(<https://c2fo.com/>)

14) 미수금 금융(Invoice Financing): 기업이 미수금(인보이스)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써 청구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인보이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다이내믹 할인(Dynamic Discounting):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일찍 지급하는 대신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써 공급자는 현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구매자, 공급자,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전체 공급망의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는 금융 방식으로써 구매자의 신용도를 활용해 공급자가 조기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매출 기반 선지급(Merchant Cash Advances): 소상공인에게 미래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담보로 현금을 미리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임. 대출과 달리 정해진 월 납부금이 없고, 매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함

15) 네이버 파이낸스 빠른 정산(<https://finsupport.naver.com/settlement>); 데일리페이(<https://www.daily-pay.co.kr/>); 올라(<https://www.allra.co.kr/>); 얼리페이(<https://earlypay.kr/landing>)

- 2021년에 설립된 얼리페이¹⁶⁾는 오프라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과 배달주문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을 통한 매출을 익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 얼리페이의 주 구독자는 요식업 분야 소상공인들인데, 매출 정산주기는 최소 이틀에서 14일까지 다양한데, 카드사 평균 입금주기는 약 3일, 배달 플랫폼의 평균 입금주기는 약 6일임
 - 365일 선정산서비스와 매출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데, 매출내역 레포트, 알림톡, 매출분석 등에 대한 이용료로 한 달 기준 66,000원의 구독료를 받음(하루 2,200원씩 선정산금에서 차감)
 -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얼리페이가 공급한 누적 선정산금은 약 2,235억 원이었고, 소상공인이 이용한 누적 선정산 횟수는 총 286,961건이었음
- 얼리페이는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신용공여나 상환청구권 없이 매수하여 소상공인이 신용점수의 영향 없이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결제주기를 단일화하여 소상공인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움
 - 선정산 수수료는 정산금액의 약 0.1% 수준인데, 현금확보를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임
 - 2024년 9월 기준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는 16.87~19.73%, 카드론 평균 수수료는 12.09~16.38%임¹⁶⁾
 -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서류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 다만 현재 배달앱 매출채권은 신용공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매입 형태로 유통화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제3자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선정산은 대부법인(자회사)을 통해 초단기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¹⁷⁾

3.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 촉진방안

- 위 사례들을 통해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음
- 이러한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크게 제도 및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 촉진, 기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제도·절차 분야의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¹⁸⁾ 활용하여 금융포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회사에게 사업

16) 여신금융협회 카드대출, 결제성 리볼빙 신용점수별 수수료를 공시(<https://gongsi crefia.or.kr/portal/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Detail20?cgMode=20#>)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18)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를 허용하여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이 있음; <https://sandbox.fintech.or.kr/>

개시를 위한 특례나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 절차적 혁신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기존 제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규제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제도를 명확히 하거나 특례를 허용하여 도움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페이워치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급여선지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이 필요했으나,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스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받은 바 있음

○ (투자 촉진) 금융포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금융포용 투자 기준 마련, 민간의 금융포용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자산군에서의 임팩트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함¹⁹⁾

- 민간의 금융포용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신용평가 측면 등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임
- 금융포용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임팩트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책편드조성 시 투자목적 및 대상에 금융포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안과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⁰⁾
 - 현재 국내 임팩트투자 관련 공공자금은 벤처캐피탈 운용사로 유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해 채권, 하이브리드자본 등 다양한 자산군을 다룰 수 있는 임팩트투자 전문 운용기관 육성도 필요함²¹⁾

○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 금융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소상공인 대상 선정산 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제3자(소상공인 대상 선지급 서비스 제공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선정산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도 근로자에게 사내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심사기준을 완화 가능성 여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됨

20)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란 재정적 투자수의 창출과 더불어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이고 측정가능한 영향을 주는 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기여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https://www.undp.org/policy-centre/istanbul/impact-investing-0>). 현재 국내 임팩트투자 관련 공공자금은 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VC) 운용사로 유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21) 다양한 자산을 다루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기관에는 영국의 Bridges Fund Management, 스위스의 Blue Orchard, ResponsAbility 등이 있음